

조선족 강희웅교수, 아태과학원 원사로



강희웅교수

◆ 실험진단학의 학과 건설과 표준화 진척 주도
◆ 'POCT'(즉시검사), 림상검사의 효율과 정확도 현저하게 향상
◆ '전 생명 주기 건강평가체계' 구축

수도의과대학부속북경천단병원 실험진단센터 교수이며 의학박사이며 주임의사이며 박사생 지도교수인 조선족 강희웅(康熙雄)이 최근 아시아 태평양과학원(아태과학원) 원사로 선별되었다.

1952년 연변의 3대 의학가정에서 태어난 강희웅은 현재 우리나라 림상면역학, 실험진단학의 유명한 전문가이고 의학교육가이며 '전 생명 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 건강평가체계'의 구축자이다.

지난 2월 15일, 아태과학원은 건강과학 분야에서의 강희웅의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아태과학원 원

사로 선별했다고 알렸다. 선발 이유에 대해 “당신은 실험진단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이자 체외진단 공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교수이다. 당신이 초기에 제안한 ‘개인화 진단 리본’과 현재 제안한 ‘전 생명 주기 건강평가체계 구축’ 관련 연구와 노력은 모두 건강과학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아태과학원은 전했다.

강희웅은 우리 나라 실험의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아태과학원 원사로 선별된 학자이다. 아태과학원은 국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주로 아태지역의 과학자를 원사로 뽑는다. 아태과학원은 2021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 기술 전문가, 문화활동가로 구성된 아태과학원은 국제 기술 분야의 새로운 고급 싱크탱크(新型高端智库)와 지적 자원(智力资源)을 집대성한 것으로 과학기술이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희웅은 아태과학원 원사로 선별된 것에 아주 기뻐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회고했다. “청년시절 연변 농촌에 지식청년으로 내려간 저는 7년후 공사(公社) 단위 서기를 맡았습니다. 거기서 공농병대 학생으로 선발되어 장춘에 있는 베쑤의과대학에서 의료학과를 전공했습니다. 1978년 졸업후에는 베쑤의과대학제3병원(지금의 길림대학중일연의병원)에 배치받았으며 그후 두번이나 일본 류학을 다녀왔습니다. 전적으로 당과 정부의 배려가 컸습니다.”

해당 전국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낸 강희웅은 세계보건기구의 장학생으로 뽑혀 1986년 도쿄의과대학 하치오지(八王子) 의료센터에서 가고자끼 마사미 교수의 지도 아래 류학공부를 했다. 학문에 정진한 강희웅은 4년 만에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강희웅은 중일 사사가와(笹川) 의학장학생으로 뽑혀 도쿄대학 의학과학연구소에 가서 류학공부를 하며 유전자 진단과 유전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는 저명한 혈액학자이며 일본 혈액학회 리사장이며 일본 유전자치료협회 회장인 아사

노 시게타가 교수의 지도 아래 혈액학과 유전자 치료 분야를 전공했다. 재일 기간, 그는 일본 후생성 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로부터 ‘외국 의사 림상수련 허가증’을 받고 림상의학 연구사업에 종사했다.

국내 최초 실험진단학 박사이자 학과 선두주자인 강희웅은 아시아와 세계 림상검사의학계에서 활약하며 동업자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가면역성 신경계질환, 자가면역성 신장병 등 자가면역병 및 종양 림상진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그는 저서 30여부, 논문 300여편을 발표했으며 박사 26명과 석사 125명을 양성했다.

장백산이 송이버섯, 인삼 등 만천령물을 잉태하듯이 그가 양성한 검사인재와 과학연구팀은 이미 중국의학계의 ‘생태군락’을 이루며 감염병, 중앙조기검진 등 분야에서 썩씩하게 성장하고 있다.

/ 주동 김명준
박명화 기자



젊은 시절 강희웅이 'POCT'(즉시검사)를 하고 있다.

로인, 가짜 건강보조제 어떻게 식별해야 할가?



어떻게 건강보조제와 약품 사기로부터 멀어지게 로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사기 반대 홍보만으로는 절대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짜 건강보조제와 약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국약준자’(国药准字)와 추적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국약준자’는 정규 약품의 신분증과 같은바 그 격식은 ‘국약준자 H(Z, S) + 네자리 년도 + 네자리 시퀀스 번호’이다. 여기서 H는 화학약품, Z는 중약, S는 생물제품을 대표하며 건강보조제는 ‘파란 모자’ 마크와 ‘국식건주 G + 네자리 년도 + 네자리 시퀀스 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정보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웹사이트, ‘중국약품감독관리’ 앱, 알리페이, 위챗의 ‘스캔’ 기능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짜 약품은 종종 폐기된 비준번호나 가짜 비준번호를 사용한다.

둘째, 약품의 외부 포장과 외관을 확인해야 한다. 합격된 약품의 포장은 색상이 순수하고 인쇄가 정교하며 글씨가 선명하다. 합격 약품의 정제는 색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정제에 새겨진 글자의 깊이가 일정하고 선명하며 얼룩, 균열, 조해 등의 문제가 없다. 반면, 가짜 약품의 포장은 질이 나쁘고 색상이 순수하지 않으며 글자와 도안의 인쇄가 거칠다. 가짜 약품의 정제는 색상이 불균일하고 얼룩이 있으며 당의가 벗겨지거나 균열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짜 약제는 침전, 결정, 변색이 발생하거나 솜털모양의 물질이 있을 수 있다. 과립제는 덩어리로 뭉쳐 잘 녹지 않으며 연고는 수분이 증발하거나

곰팡이가 끼거나 기름냄새가 날 수 있다.

셋째, 생산 일련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합격 약품의 포장에는 레이저로 인쇄된 제품 일련번호, 생산일자, 유효기간이 있다. 반면, 가짜 약품은 종종 항목이 누락되거나 유인(油印)으로 찍은 일련번호와 날짜를 사용한다.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로인들은 로쇠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바 일부 소위 ‘병’은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의 표현일 뿐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로인들이 사회구역이나 정규 병원에서 주치의는 공익과 학보급단을, 무료 진료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가족들도 로인들의 병력, 검사 결과, 약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2025년 국가 의료품질안전 개선 목표 공표

21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2025년 국가 의료품질안전 개선 목표와 각 전공의 2025년 품질관리사업 개선 목표를 발부했다. 그중 국가 의료품질안전 개선 목표는 입원 환자의 정맥주사 규범사용률을 제고하고 의료기구의 검사 결과 상호 인정률을 제고하는 등 10가지 목표를 명확히 밝혔으며 품질관리사업 개선 목표에는 호흡기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및 소화외과, 회귀병 등 40개 전공이 포함되었다.

정맥주사는 현대 약물치료의 중요한 투약 경로로서 일부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구조하는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맥주사를 불합리하게 사용하면 환자의 치료 효과를 개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 위험이 더 많이 존재하며 불필요한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선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입원 환자의 정맥주사 사용 상황에 비추어 품질 개선 장기적 효과 기제를 보완하고 여러 차원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입원 환자의 정맥주사 사용률, 침대당 일일 정맥주사 사용 빈도, 주사액의 총량과 약품의 품종 수량 등 지표에 정조준해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의료안

전과 환자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봉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진료의 품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에서 부당한 의료기관 간의 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을 실현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리용률을 높이고 의료비를 통제하며 진료 능률성을 제고하고 대중의 의료 체험을 더욱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선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의료기구는 응당 본 기구의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검측평가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하며 매달 본 기구의 데이터 분석과 피드백을 진행해야 한다. 상호 인정률에 대한 검측과 평가를 진행하고 상호 인정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2025년 국가 의료품질안전 개선 목표에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급성 뇌경색의 재관류 치료률을 높이고 종양 치료전 림상 TNM 단계 평가률을 높이며 정맥혈전 색전증 규범 예방률을 높이고 감염성 쇼크 집속화 치료 완성률을 높이며 의료품질안전 불량사건 보고률을 높이고 4급 수술전 다학과 토론 완성률을 높이며 관건 진료 행위의 기록 완성률을 높이고 비계획적 수술실 재입실 수술률을 감소해야 한다.

/ 신화사

우리 나라

일부 기층병원에 ‘AI 소아과 의사’ 배치

20일, 기자가 국가아동의학센터, 수도의과대학부속북경아동병원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국가아동의학센터에서 추진하여 연구개발한 소아과 의학 대형 모델 ‘북당·백천’(福棠·百川)’이 곧 북경 해전구, 경제기술개발구 사회구역병원, 하북성 150여개 현급 병원에 배치되어 AI 소아과 의사 림상 응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소개에 의하면 이 AI 소아과 대형 모델은 어린이의 흔한 질병 및 난치병에 대한 립체적인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소아과의 ‘증거기반모델’을 통해 어린이 환자에게 과학적이고 차별화된 진료 방안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모델은 300명 이상의 북경아동병원 유명 소아과 전문가의 림상경험과 수십년간의 병력 데이터를 통합했다. 어린이 환자의 부모와 만났을 때 여러차례의 진찰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아동의학센터 주임이며 북경

아동병원 원장인 예흠은 ‘북당·백천’ AI 소아과 의사 기층 버전, 전문가 버전 두가지 응용프로그램은 국가구역의료센터, 소아과의료연합체, 현급 3급병원, 사회구역병원 등 여러가지 정경을 시범으로 삼아 클라우드 배치 혹은 현지화 배치를 통해 실제 의사와 AI 의사의 ‘이중의사제’를 채택하여 전국 소아과 진료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AI 소아과 의사 전문가 버전은 이미 2월 13일 북경아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AI 소아과 의사 + 다학과 전문가’의 이중 의료 병행 다학제 진료 모드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 달 넘는 동안 AI 소아과 의사는 이미 10여차례 난치병 회귀병 진료와 소아과 회진 등에 참여했으며 진료 결과는 북경아동병원 전문가 회진 결과와 95%의 일치률을 보였다.

/ 인민일보

성간 타지역 진료, 어떻게 직접결산할가?

보험참가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 위챗계정은 현재 타지역 진료 등록 위치 기능을 개통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참가자는 아래 공략에 따라 조작하면 성간 타지역 진료 등록을 완성할 수 있으며 타지역 진료 직접결산을 누릴 수 있다.

‘국가의료보장국’ 위챗계정에서 의료보험서비스—국가 타지역 진료등록(国家异地就医备案)을 클릭하고 타지역 등록 미니앱에 들어간다. ‘타지역 진료 등록 신청’을 클릭하고 실명인증을 마친 후 등록을 시작한다.

두번째 단계 : 등록 유형 선택
타지역 진료 등록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험지역이 시스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있는데 보험가입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진료장소, 보험유형 및 등록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 : 등록 자료 제출
등록고지서를 읽고 ‘본인은 등록고지서를 자세히 읽었다’를 선택한 후 ‘읽었음, 등록 시작’을 클릭하면 된다.
등록 정보를 적고 련락인 정보를 적은 후 해당 자료를 올리면 된다. 확인후 ‘등록 제출’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성된다.

네번째 단계 : 등록 진도 조회
첫페이지 ‘등록 기록’을 클릭하고 타지역 진료 등록 기록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등록 진도를 조회할 수 있다.
/ 인민넷 - 조문판

훈춘시중의병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실시

올해 3월 제10번째 ‘전국 근시 예방통제 선전주간’을 맞으며 훈춘시중의병원 안과외과진료는 훈춘시제3유치원의 180여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진행하고 건강보급 활동을 펼쳐 눈 건강의 중요성과 시력 보호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심어줬다. 사진은 시력검사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 김춘연

